

의상대사의 사상

현 내 거

일시: 2002년 12월 7일 오



의상만해연구원 학술대회에서 '의상사상의 현대적 의의'를 주제로 의상대사 입적 13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

1600년 한국 불교사에서 양대 산맥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원효(617-686)와 의상(625-702) 스님의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나란히 열렸다. 의상만해연구원(원장 설용 스님)이 7일 의상스님 입적 1300주년을 맞아 '의상사상의 현대적 의의'를 주제로 기념학술대회를 연 데 이어 원효학연구원(원장 이명래)은 13일 '원효성사와 정토사상'을 주제로 정기학술회의를 열었다. 두 학술대회는 7세기를 같이 살았던 원효와 의상 스님의 사상이 1천여 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21세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 관심을 모았다.

의상·원효 사상 조명 학술대회 나란히 열려

'연기론', 환경위기 해법

의상만해연구원

이도훈 교수(한양대)는 7일 열린 의상만해연구원 학술대회에서 "하나 안에 일체 있고, 일체 안에 하나 있다(一中一切多一中)"는 의상 스님의 법계연기론은 전 지구 차원의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바이오스피어 2(Bio-sphere II)의 실패담을 예로 들었다.

문에 박테리아가 살지 못해 대기 균형이 깨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으로써 '연기'의 개념에 눈 뜨는 계기가 됐다. 이 교수는 "서구 생태학자들이 심층생태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한 마리의 바이러스와 인간이 평등하다는 생명 평등주의는 에코파시즘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연기론이 담고 있는 평등 정신은 이 생명과 저 생명이 서로 의존하고 있는 관계를 밝히으로써 자연의 바이러스와 인간이 평등하다는 생명 평등주의는 에코파시즘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생물끼리 상호의존 공존 도모

12월 7일 열린 의상만해연구원 학술대회에서 이도훈 교수는 "하나 안에 일체 있고, 일체 안에 하나 있다(一中一切多一中)"는 의상 스님의 법계연기론은 전 지구 차원의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바이오스피어 2(Bio-sphere II)의 실패담을 예로 들었다. '바이오스피어 2'는 미국 네바다 사막에 햇빛만 빼고 모든 조건이 동일한 가상 지구를 만들어 8쌍의 부부를 살게 한 실험으로 1년 반 만에 산소가 급격히 줄어들어 실패로 끝난 프로젝트. 콘크리트 때

있는 위험이 있다"며 "연기론이 담고 있는 평등 정신은 이 생명과 저 생명이 서로 의존하고 있는 관계를 밝히으로써 자연의 바이러스와 인간이 평등하다는 생명 평등주의는 에코파시즘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ia.com

염불로 극락왕생가능할까?

원효학연구원

염불만으로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 13일 원효학연구원 학술대회에서 '원효의 정토교에 있어서 왕생의 문제'를 발표한 보광 스님(통곡대 선학과 교수)은 "만약 염불만 하여 왕생할 수 있다면 염불을 입

정인(原因)은 어디까지나 발보리심이며 염불은 조인(助因)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아무리 염불을 하더라도 발보리심이 없는 염불은 왕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염불 로봇은 왕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발보리심 없으면 불가능

역시진 로봇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문제는 '극락세계에 왕생한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이 극락으로 가는 것일까'라는 질문과도 연결된다. 보광 스님은 '원효는 <무량수경종요>와 <아미타경소> 등에서 극락왕생의

그러나 보광 스님은 초상집의 영가 테이프에서 나오는 염불 소리를 듣고 발보리심을 일으킨다면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제식장에서 직접 염불하지 않고 염불 테이프를 틀어놓는 것도 그 공덕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가자도 깨달음 얻을 수 있다"



초기 불교경전·대승불교 논서들 출가자처럼 아라한 도달 설파 최중남 박사 각종 문헌 분석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에 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출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재가자의 생활을 영위 하면서도 가능한 것일까?

12일 열린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학술 심포지엄에서 최중남 박사(위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재가자의 깨달음'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시대에 따라 초기, 부파, 대승 불교의 경·율·론에서 재가자의 깨달음에 대해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를 비교했다.

초기불교의 거의 모든 경전은 재가자도 출가자와 같이 아라한 또는 열반의 단계까지 이를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그러나 <

심모공덕경>에서만큼은 아라한과의 아랫 단계인 불퇴과(不退果)까지만 설함으로써 깨달음의 경지를 출가자에 한정한다.

부파불교 내에서도 상좌부파의 논서들은 재가 생활 속에서는 깨달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가자가 아라한에 이를 수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아라한위를 얻었다면 출가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상좌부파 팔리 일곱 논서 중 하나인 <논사>는 아예 재가자 아라한설 자체도 부정한다.

하지만 보살사상에 입각해 재가자의 깨달음을 고찰하고 있는 대승 경·론은 재가자로서 집에 머무르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소승'에 대한 인식 너무 도식적 '대승'이 불교 보편체계 단점 위험" 권오민 교수 한국불교학회서 지적

권오민 교수

11월 30일 열린 한국불교학회 제37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소승불교 일고(一考)'라는 발표문을 통해 "불교는 시대와 지역이 따라 전개된 온갖 상이한 학적 체계가 모여 이루어진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체계인데도 우리는 역사와 전통의 권위를 전제로 하여 '대승'만을 하나의 절대적 이념 내지 추상적 관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해 관심을 모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승과 소승의 구분이다. 권 교수에 따르면 소승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지극히 도식적이고 상투적이다. '실유론'의 입장에서 오로지 자리만을 주장하는, 불타정법을 왜곡한 이기적인 불교

라는 것이 지금도 설법이나 개론서,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승이다. 하지만 권 교수는 "소승의 아비달마 불교가 왜 무상의 참나를 강조하면서도 실유를 설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왜 한편으로는 보살의 이타행을 설하면서도 자리를 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구호'처럼 되풀이하는 것은 신앙의 차원이지만 학문적 자세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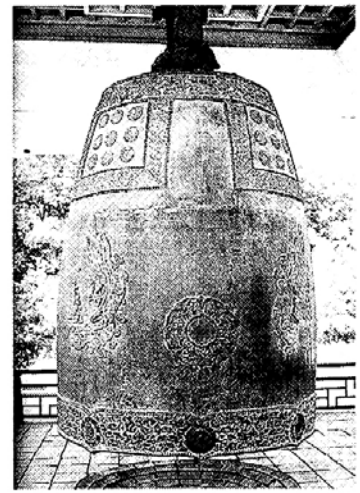
권 교수는 "대승이아말로 불교의 모든 것이라고 단정하지만 그 역시 불타의 깨달음을 탐구하고 해석한 하나의 갈래일 따름이고, 그 갈래 또한 단일하지 않다"며 "불교가 '대승'이라는 이름 아래 보편체계로 해석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불교공예(1)

하늘의 조화? 사람의 기교?

동해안 감포 앞바다에 거북 머리 모양의 산이 돌출 떠다니고, 그 산 위에 무가 닳아 돌이 되고 밤에는 하나로 합해진다. 용이 신문왕에게 이 대나무가 소리써 천하를 다스리게 될 징조라고 말하니, 왕이 이 대나무를 베어 피리를 만들게 하였다. 용의 팔처럼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질병이 나고, 가을 때 비가 오고, 비올 때 비가 개이고, 바람이 가라앉고, 물결이 평온해졌다. 그래서 이 피리를 모든 파도를 잠잠케 한다는 의미로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고 불렀다.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 771년, 무게 189). 장중한 형태에 웅장한 소리가 아름다운 모습에 많은 소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막혔음이 소리쳐, 보는 이는 기이함을 칭송하고 듣는 이는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읊은 바 있다. 그래서인지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의미로 신종(神種)이란 칭호를 붙여주었다.

신라 종은 중국 종과 비교할 때,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 보인다. 하나는 종 위에 음통을 세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종에 비하여 여백의 활용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음통은 신비의 소리를 울리게 하는 데 있어서 조절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그리고 미술사적으로 눈길을 끄는 것은 여백의 활용 부분이다.

중국 종이 스님 가사처럼 격자형으로 몸 전체가 구획된 반면, 신라 종은 유곽을 위로 끌어올려 그 아래에는 충분한 공간을 살렸다. 성덕대왕신종에는 이 여백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신라 장인의 부조 솜씨가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다. 평면의 공간에 그다지 높지 않은 부조로 입체감과 깊이감을 충분히 살려 표현하였다.

성덕대왕신종 화엄사상을 소리로 표현

장중·조화·신비의 종소리... 완벽한 면모

적에 그치지 않았다. 김필해(金弼海)가 성덕대왕신종에 새긴 명문에서, 이 종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승(一乘)의 원을(圓音)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피리와 종은 단순히 소리만 내는 악기나 의식구가 아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정치적, 종교적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일승의 원음이라는 화엄의 사상을 소리로 구현한 성덕대왕신종은 빼어난 조형으로 명성이 높다. 장중한 형상, 조화로운 비례, 아름다운 부조, 여기에 웅혼한 소리까지 갖추어 범종으로 완벽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김필해는 그 종의 형상을 "그 모습은 대산이 우뚝 선 것 같고, 그 소리는 우렁찬 용의 소리 같았으며, 위로는 지극히 높은 하늘과 아래로는 지옥세계에 이르기까지

대왕신종에는 이 여백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신라 장인의 부조 솜씨가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다. 평면의 공간에 그다지 높지 않은 부조로 입체감과 깊이감을 충분히 살려 표현하였다.

천의자락과 장신구를 휘날리며 사뿐히 내려앉은 공양자는 무릎 꿇고 앉아 연꽃항로를 바치고 있고, 꽃구름은 공양자와 함께 피리를 휘날리며 내려와 대좌를 마련하였다.

바람에 휘날리는 천의 장신구 꽃구름이 자아내는 운율이 아름답기나 동적인 흐름 속에 정적이고 간결한 모습을 담은 극적인 발상이 고귀해 보인다. 성덕대왕신종에 펼쳐진 완벽한 곡선미와 조형성은 과연 하늘의 조화인지 인간의 기교인지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한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당뇨

씨트리 키토산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그것은 씨트리 키토산에는 사람의 체지방의 90%를 차지하는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지방을 바꾸기 전에는 당노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씨트리 키토산의 당대사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천천히 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고 당노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린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밸런스를 조정에 합니다.

▶ 씨트리 키토산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씨트리 키토산 5g x 90포 (450g) 17개월 130,000원

당노병 및 기타질환에 대한 씨트리 키토산의 효과

- 위해량, 비만증, 무중,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장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신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씨트리 키토산 (주) (주)도계비바수업부

무엇보다 상담 (02) 598-9832

부품 전화 080-598-9832

불자님, 이제 병고에서 벗어나세요!!

오랜세월 불보살님 가피를 입은 큰스님께서 세상에 한분 밖에 없는 초능력 힘입어 지닌 불보살님으로 명명 받은 분께서, 병원에서조차 치유되지 않는 원인모름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불자님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증증, 와사풍, 중풍 (발병 6개월이내) 간질, 만성위염, 오장육부가 불편, 만성두통, 천식, 천도폐렴, 관절염, 만성피부질환, 정신질환 등 (내방환영합니다)

병명

작명, 오행철학(五行哲學), 인생의 길 안내와 상담도 해드립니다

대구 팔공산 갓바위 뒷길(선화정사)

053)853-5858, 011-808-8880

승복 법복 안내

인연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처음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1. 모직혼방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2. 면 100% 조각무늬 무직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3. 누비 (면순 100%)	적삼, 바지: ₩220,000 동방, 바지: ₩240,000 두루막: ₩200,000
4. 누비 (혼방)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70,000
5. 법복 (회색, 방색)	조끼, 바지: ₩60,000 ~ ₩65,000
6. 장삼 (모직)	₩200,000 ~ ₩250,000
7. 승복 (글렌)	적삼, 바지, 조끼 ₩200,000 동방, 바지 ₩190,000

◆ 슈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

▶ 전야로든 가사 주문 받습니다 ▶

◆ 찾아오시는 곳: 대구 지아빌 중앙로역 3번 출구 앞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섬유

전시장: 053)256-0108
공 장: 053)425-4449
휴대폰: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대리점모집)

승복, 법복안내

인연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처음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들이 입을 수 있도록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에뮬승복 직원일동 -

1. 적삼 조끼 바지 ₩160,000	2. 동방 바지 ₩160,000	3. 두루막 ₩140,000	4. ₩60,000
5. 적삼 조끼 바지 모직누비 ₩320,000 면순누비 ₩250,000	6. 동방 바지 모직누비 ₩220,000	7. 두루막 모직누비 ₩250,000 면순누비 ₩160,000	

장누비

8. 셔츠 ₩50,000 (치아나비 4000원) 바지 ₩60,000

9. 셔츠 ₩30,000

해동승복

대구광역시 중구 신천4동 39-1

TEL: 053)741-8131

FAX: 053)741-8132

H.P: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